

공여자의 자녀들이 되어 모든 이에게 협조해 주어라.

오늘 밥다다는 봉사에서의 그의 동반자들을 만나려고 왔다. 밥다다가 높은 중에서 최고로 높은 곳에 안정해 있으면서 무한한 봉사의 도구인 것처럼, 너희들 역시 물질세계에서 높은 가운데 최고로 높은 곳, 많은 영혼들이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곳에 안정되어 있는 무한한 봉사를 위한 도구들이다. 올바른 장소를 모르면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위쪽으로 향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도 모든 영혼들의 시선은 이 위대한 장소에 계속 머물며 계속 이곳에 쏠릴 것이다. 지금 현재 그들은 “그것이 어디인지” 찾으려고 여전히 애쓰고 있다. 그들은 아주 높은 장소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느낀다. 그러나 바로 여기가 그곳임을 그들에게 암시해주려고 너희들 모두 어디서나 봉사하고 있다. 이 무한한 과업은 이 봉사를 드러내어 만일 그들이 뭔가를 찾거나 획득한다면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일 것임을, 이것이 자기들의 고귀한 목적지라는 것을, 자기들이 영원히 생명을 기부 받을 곳이 바로 세상에서 제일 높은 이 구석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 무한한 과업을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한다. 감춰져 있었거나 땅에 묻혀 있던 뭔가를 갑자기 찾아내면 사람들은 행복해하며 온 사방에 소식을 알린다. 마찬가지로 현재는 은밀한 영적 보물들을 성취한 이 장소를 경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이미 잃었거나 낭비해버렸던 은밀한 보물들을 찾을 수 있는 장소를 다시 한 번 발견했다고 느낄 것이다. 모든 이의 마음속에, 또 입에서, 이것은 참으로 외진 구석에 있는 참으로 고귀한 성취의 장소라는 말과 모든 이에게 이에 관해 알려야 된다는 말이 차츰 나올 것이다. 이처럼 그들은 독특한 아버지, 독특한 신성한 활동, 독특한 장소를 보고 행복해할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이의 입에서, “이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이것은 놀라운 과업이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을 것이다. 이 경험을 영원히 주도록 너희는 어떤 준비를 해 놓았느냐?

너희는 강당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나 강당과 더불어 너희의 행동도 역시 모두 옳으냐? 강당과 함께 사람들은 너희의 행동도 역시 볼 것이다. 이처럼 강당과 너희의 행동, 양쪽 모두 무한하지 않으냐? 너희는 작업 인부들과 특별한 기술자들의 도움으로 아름다운 강당을 준비했다. 인부들이 없다면 엔지니어들이 뭘 하겠느냐? 그들은 종이에 도면을 그릴 수는 있지만 노동자들 없이는 실제적인 형태를 만들 수 없다. 모든 이가 물리적인 협조의 손가락을 보탬으로써 강당이 준비되었다. 마찬가지로 강당과 더불어 경이로운 행동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각 속에서 생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특별한 형태를 보여라. 엔지니어들의 지각과 노동자들의 행위라는 도움으로 과업이 달성되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고귀한 생각과 함께 너희의 모든 행위에서 그들이 독특한 행동을 경험하게 해라. 오직 모든 행위를 통해서만 실제적인 형태가 눈에 보일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모두 손과 발뿐 아니라 생각으로도 그러한 행동의 독특한 형태를 드러낼 결심을 다 함께 갖고 있느냐? 그러한 행동을 위한 계획을 준비했느냐? 3000명의 집회만 갖지 말고, 3000명 가운데 트리무르티가 보이게 해라. 각자가 너희 모두를 브라마같은 카르마 요기들로, 비슈누처럼 사랑과 힘으로 부양해주는 자들로, 그리고 샹카르처럼 타파스위의 분위기를 창조하는 자들로 경험하게 해라. 너희들의 내면에 이처럼 모든 힘을 비축해놓았느냐? 너희들의 이 보물창고를 가득히 채워두었느냐? 이 비축물의 재고를 점검했느냐? 아니면 너희들 모두 점검할 시간이 없을 만큼 바빠졌느냐?

봉사의 영원한 성공을 위해서는 너희가 희생 제물로 어떤 특정한 변화를 바치겠느냐? 너희 스스로를 위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느냐? 모든 선물들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기부자의 자녀가 되어 모든 이에게 협조해 주는 것이다. 모든 선물 중에서 최대이며 가장 특별한 선물은 망쳐진 과제, 망쳐진 산스카르, 망쳐진 기분을 너희의 좋은 염원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아무개가 한 말이나 행동한 것을 보고 듣고 이해하면서도 너희가 비축해둔 협조로 그것을 변형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누군가 없을 때는 모든 종류의 봉사를 다 하는 봉사자가 그의 뒤를 이어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어떤 특정한 힘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너희는 협조로 그 간격을 메워서 남들이 그 사람에게서 아무 부족함도 경험하지 않게 해라. 이것이 곧 공여자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때에 따라 협조를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런저런 것을 했다는 생각은 하지 말고 이뤄져야 하는 일들을 계속해라. 어느 누구의 약점도 보지 말고 계속 발전해라.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최선의 것에 대해서 그저 생각만 하지 말고 그걸 행해라! 이것은 독특한 행동의 실제 형태라고 불린다. 모든 것들 중에서 최상의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 너희들은 한결같이 전체에서 최상의 것을 행해야 한다. 늘 이 강력한 생각을 가져라. 그것에 대해 그저 말만 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세계 갱신의 과업에서 성공의 실제 형태를 계속해서 보고 남들에게 보여줘라. 그러한 준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모든 이의 책임이긴 하지만 특히 마두반 거주자들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2중으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으냐? 너희가 강당을 짓고 개관식을 가졌듯이 너희는 또 새로운 유형의 행동도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 총연습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성공의 복소리가 온 사방에 들릴 것이다. 어떤 장소가 더 높을수록 그 빛은 더 멀리 퍼진다.

이것이 모든 장소들 가운데서 최고로 높은 곳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소리가 모든 곳에 가 닿을 수 있게 하려면 등대이며 발전소가 되어라. 앓차. 앓차

모든 미덕과 모든 힘에서 그들 스스로를 아버지와 똑같이 가득하게 만들고서 모든 이에게 비전을 허락하는

자들에게, 형상이 없는 단계에 안정되어 있으면서 육신의 형태를 통해 아버지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높은 중에서 최고로 높은 그들의 단계를 통해서 높은 가운데 최고로 높은 장소와 높은 중 최고로 높은 성취의 보물창고를 드러내는 자들에게, 모든 이의 마음에서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찾았으며 성취했다는 노래가 나오게 만들려는 좋은 염원과 순수한 느낌을 항상 변함없이 가지는 자들에게, 그렇게 가장 고결하고 무한한 봉사자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마두반 거주자들을 만나심.

축복의 땅에서 살고 있는 너희들은 끊임없이 충족되어 있는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들 자신이 모든 성취로 가득한 것을 경험하는 정도만큼 너희는 한결같이 충족되어 있을 것이다. 만일 뭔가 결핍되어 있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럴 경우엔 불만이 생긴다. 이처럼 너희들은 모든 성취를 다 갖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생각에서 성공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너희들의 왕국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약간 노력해야 한다. 여기서는 남들 앞에 있는 것만큼 문제가 많지는 않다. 여기서는 문제가 놀이처럼 되었다. 그렇더라도 너희는 적시에 계속 협조를 받아왔는데 왜냐하면 너희는 용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용기가 있는 곳에서는 너희가 반드시 협조를 받는다. 너희 마음속에 격동이 생기게 하지 마라. 너희들의 마음이 변함없이 가벼울 때는 모든 이가 너희에게서 가벼움을 느낄 것이다. 어떤 경우든 카르마의 잔고가 어느 정도는 있지만, 그것들이 별 것이 아닌 양 그 카르마의 잔고들을 극복해라. 사소한 것을 크게 만들지 마라! 뭔가를 크게 만들거나 작게 만드는 것은 너희들의 지각에 달렸다. 지금 이것은 무한한 봉사의 때다. 그러니 무한한 지각을 가져라! 분위기를 강력하게 만들어라. 영혼인 너희들은 각자 이것을 너희 책임이라고 여겨야 한다. 너희들이 이미 각자의 성질과 산스카르를 알고 있으니 그렇다면 너희는 지식으로 충만하므로 결코 어느 누구의 성질이나 산스카르와도 충돌을 일으킬 수 없다. 어디에 구멍이 나 있고 어딘가에 산이 있다는 걸 알 때는 그 사람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할 테고 그것에 충돌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이처럼 너희 자신을 한결같이 안전하게 지켜라. 어떤 한 사람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 상대방은 자동적으로 안전하다. 뒤로 물러서라, 즉 너희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분위기도 역시 안전하게 지켜라. 일에서 물러서지는 마라. 물러선다 함은 너희들 자신이 안전한 그 힘으로 남들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뜻이다. 너희는 그런 힘을 길러두지 않았느냐?

사카르 형태를 따르는 측면에서 모든 이가 오직 마두반만 쳐다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높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마두반에 사는 자들은 한결같이 그네를 계속해서 탄다. 여기서 너희들에게는 온갖 유형의 그네가 다 있다. 미묘한 성취와 더불어 신체적인 성취도 크다. 끊임없이 그네를 타고 있을 때 너희는 결코 실수할 수 없다. 너희가 제 잘못과 남들의 잘못을 보는 것은 성취의 그네에서 너희가 내려왔을 때다. 그네에 앉아 있기 위해서 너희는 땅에서 발을 떼어야 한다. 그러므로 마두반에 있는 자들은 끊임없이 모든 성취의 그네를 한결같이 타야 할 필요가 있다. 너희들의 삶이 단지 성취에 기반을 둘 뿐이 아니라 성취들이 너희에게 올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성취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만일 너희에게 욕망이 있다면 그 경우엔 모든 성취를 다 갖고 있으면서도 너희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고 그러면 한결같이 너희 자신이 비어 있다고 여길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노력하지 않아도 성취가 제 스스로 너희에게 올 정도의 그런 행운을 가졌다. 그러므로 이 행운을 변함없이 너희의 의식 속에 간직해라. 너희가 더 이타적이 될수록 성취가 더 많이 자동적으로 너희에게 올 것이다. 앗차.

밥다다가 봉사자들을 만나심.

“봉사자”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실을 먹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봉사하자마자 너희는 행복을 경험하는데 그러므로 이것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결실이다. 봉사자가 되는 것은 전체 모든 행운 중에서 최대의 행운을 나타내는 표시다. 그것은 여러 생 동안 너희 스스로를 자아의 군주로 만드는 쉬운 방법이다. 이런 이유로 봉사한다는 것은 너희들의 행운의 별을 빛나게 만든다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이해를 가지고 봉사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이 봉사 또는 성취라고 느끼느냐? 그것이 봉사라고 불리지만, 그것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받는 것이다. 너희는 얼마나 많이 봉사하느냐?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을 다 받는다! 이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행복의 모든 편의시설을 받는다. 너희는 어려운 일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해야 할 힘든 일이 아무리 많아도 너희는 또 그 일을 해낼 편의시설도 역시 받는다. 그래서 그것은 힘든 일처럼 느껴지지 않고 놀이처럼 여겨진다. 그러므로 봉사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성취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다. 너희는 하루 종일 지내는 동안 어느 정도로나 성취하느냐? 너희가 매일 매 시간마다 얼마나 받는지 계산해봐라, 그러면 그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봉사자가 되는 것은 행운의 징표다. 봉사할 기회를 받는다는 것은 너희의 보물창고가 성취로 가득해진다는 뜻이다. 너희는 미묘한 성취와 더불어 물질적인 성취도 가졌다. 너희가 신체적으로 봉사하는 다른 어디서도 너희들은 마두반에서처럼 편의시설을 많이 받지 못한다. 여기서 봉사할 때 너희는 물질적인 부양과 더불어 우선 먼저 영혼을 위한 부양을 받으므로, 그것은 2중이다. 그러니 너희는 봉사하는 동안 행복을 경험하느냐, 아니면 지치느냐? 신체적으로 봉사하는 동안 너희가 마음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봉사도 역시 하고 있는지 늘 점검해라. 이렇게 한 가지 유형의 봉사만 하지말고 동시에 2종의 봉사자가 되어 2중으로 수입을 벌 기회를 잡아라.

너희들 모두 충족되었느냐? 너희들 모두 각자의 과제에서 장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느냐? 어떤 과제에도 충돌이 없을 테지? 너희들끼리 부딪치지는 않겠지? 너희는 “나의 것”과 “너의 것”이라는 느낌이나 “네가 이걸

했지” “내가 그 일을 했어” 라고 느끼는 일은 없을 테지? 만일 너희가 뭔가를 하고 나서 “이 일은 내가 했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 경우엔 너희가 뭘 했든 그 일은 전부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은 너희가 이미 해놓은 일 모든 것에 물을 끼얹는다는 뜻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 테지? “봉사자”란 카란카라반하르 아버지가 너희를 도구로 만들어서 너희가 그 일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뜻이다. “나의 것”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마다 마야도 역시 거기로 갈 것이다. 너희가 도구이면서 겸손해지면 마야는 거기에 갈 수 없다. 너희 생각이나 꿈에 마야가 들어갈 때 그것은 “나”라는 의식의 문이 어디엔가 열려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만일 “나”라는 의식의 문이 닫혀 있다면 마야는 결코 올 수 없다.

Blessing: 아버지처럼 초연하면서 사랑하고, 가벼운 단계로 모든 과제를 가볍게 만들어라. 마음, 지각, 산스카르라는 영혼의 세 가지 미묘한 힘으로 가벼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버지처럼 초연하면서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때에 따라 타모프라단한 분위기와 바깥에 있는 인간 영혼들의 태도에는 무거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바깥의 분위기가 무거운 정도만큼 너희 자녀들의 생각, 행위, 관계는 계속 가벼워질 텐데, 왜냐하면 너희들의 가벼움으로 인해 모든 과제가 가벼운 태도로 수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활동에 영향 받지 않을 것이며, 이것이 아버지와 대등한 단계다.

Slogan: “나의 경이로움!” (와 레 메!)의 영적 도취감을 유지해라, 그러면 마음과 몸이 자연스럽게 계속 춤출 것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